

# 유아기 외동이가정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 A Study on Plan of the Only Children's Parent Education Program

국립상주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백 경 숙

광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이 무 영

Depart. of Child Welfare, Sang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Baek, Kung Sook

Depart. of Social Welfare, Kwangshin University

Full-time Instructor Lee, Moo Young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plan of the only children's parent education. This study also aimed to find out the differences in family characteristics between the only children and sibling children of the kindergartens. The major finding were as follows. The firs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 characteristics between the only children and sibling children of the kindergartens. The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 characteristics between the only children and sibling children of the kindergartens. The thir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characteristics between the only children and sibling children of the kindergartens.

**주요어(Key Words):** 외동이(only children), 부모교육(parent education)

\* 교신저자 : 이무영(E-mail: leemy@empal.com)

## 1. 서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현대사회의 산업화, 물질문명화는 여성의 교육을 향상과 취업모의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를 비롯한 가족관계, 가족역할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전통적인 가족형태의 변화는 가정 내에서 활동하던 여성들이 가정 밖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됨으로써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 이 중역할에 따른 갈등으로 출산율저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육아전쟁으로까지 표현되는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사회제도 및 시설미비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가중시켜 출산을 기피하거나 한 자녀 출산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통계청, 2002; 매일신문, 2003).

또한 가치관에 있어서도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도 질을 중시하게 되었고, 한 명의 자녀나마 경쟁사회에서 처지지 않게 키워야겠다는 욕구가 커졌고 세계최고의 교육열까지 맞물려 저 출산율을 가속화시켜 외동이가족이 증가하고 있다(한겨레신문, 2003). 그러나 이러한 외동이가족이 증가하는 현실과는 달리 '중국의 소황제(little emperor)'현상과 견주어 주로 형제가 있는 가정과의 비교를 통한 발달상의 차이점과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부정적 관심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조선일보, 2003; 헤럴드경제신문, 2003). 따라서, 외동이가족이 향후 점점 더 증가하게 되어 다양한 가족유형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외동이가족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외동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외동이의 특성을 잘 알고 그에 맞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과 아동양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및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소희, 정민자, 김경희, 1998).

사실, 1960년대 이후 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유아교육기관 현장에서 '부모교육', '부모참여', '부모지원', '부모개입', '부모상담' 등의 다양한 용어로 강연회·비디오 상영·가정통신문·수업참관·면담·소집단토의 등의 형태로 적용하여 유아기 아동발달에 도우며 기여해왔다. 또한, 이와 함께 많은 연구에서 유아기의 중요성과 유아기 발달에 중요한 양육환경으로서 부모의 특성, 부모교육에 대한 역할과 필요성 등 부모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유우영, 이숙, 1998; 이기숙, 1982; 정문자, 1992; 홍정희, 1993).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볼 때에 주로 '유아기'라는 발달단계에 초점을 두고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최근 급변하는 가족구조

의 변화에 따른 유아를 위한 부모교육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부모교육이 형제자녀의 유아기 자녀들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을 비추어 볼 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외동이의 발달과 관련하여 '형제의 부재'로 인한 발달상의 많은 결함을 유도할 것이라는 부정적 보고(Falbo & Polit, 1986)'와 형제의 존재 혹은 부재로 인한 발달상의 영향은 없다(Blake, Richardson, & Bhattacharya, 1991. 송나리, 1993. 재인용)는 상반된 연구결과만으로는 외동이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대책마련을 모색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외동이가족에 대한 복지대책으로서 외동이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외동이 부모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유아기 외동이가족의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외동이의 발달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환경, 특히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형제유무에 따른 유아의 특성, 형제유무에 따른 부모의 특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기 외동이가정과 형제자녀가정의 부모특성은 어떠한가?

- 1-1. 외동이유아부모와 형제유아부모의 사회경제인구학적특성은 어떠한가?
- 1-2. 외동이유아부모와 형제유아부모의 정서적 특성은 어떠한가?
- 1-3. 외동이유아부모와 형제유아부모의 가치관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기 외동이가정과 형제자녀가정의 자녀발달특성은 어떠한가?

- 2-1. 외동이유아와 형제유아의 사회경제인구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 2-2. 외동이유아와 형제유아의 사회적능력 특성은 어떠한가?
- 2-3. 외동이유아와 형제유아의 인지발달 특성은 어떠한가?
- 2-4. 외동이유아와 형제유아의 자아존중감 특성은 어떠한가?
- 2-5. 외동이유아와 형제유아의 기질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유아기 외동이가정과 형제자녀가정의 부모자녀관계특성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외동이의 발달에 관한 이론적 관점

외동이의 발달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외동이의 발달에 관하여 결핍, 독자성, 부모-자녀 관계의 세 가지 메카니즘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 1) 결핍 메카니즘

형제관계는 아동에게 결정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외동이는 형제의 부재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외동이는 형제가 있는 아동보다 불리하며,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특히, 결핍 메카니즘은 외동이 지능의 '비연속성'을 confluence model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Zajonc & Markus, 1975).

confluence model은 아동의 지적발달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가족 내 요인으로서 두 가지의 구성요소 즉, 가족의 지적환경 요인과 형제의 가르침 요인(sibling tutoring factor)을 들고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어른이 둘 있고 어린아이가 한 명뿐인 외동이의 경우가 지능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가정되지만, 한편으로 외동이와 막내인 경우에는 어린 동생을 가르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적발달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동이의 경우, 아동초기에는 두 자녀 가정의 아동보다 지능검사 점수가 높으나, 이러한 상태는 형제가 서로를 위한 지적 자원으로 쓰이게 되는 아동기, 청년기 동안에 점차 역전하여, 성인 초기가 되면 외동이가 두 자녀 가정의 맏이보다 낮은 점수를 보인다고 주장되고 있다.

#### 2) 독자성 메카니즘

이 메카니즘은 외동이가 경험하게 되는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외동이는 첫째 혹은 막내와 어떤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과 전혀 다른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외동이는 동생으로 인해 자기의 지위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는 막내와 유사하나, 태어나서 몇 년 동안 부모의 전적인 관심을 받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맏이와 유사하다. 또한, 외동이는 다른 아동과 달리, 외동이라는 그 자체로서 전 가족의 크기를 대표하기 때문에 독자적이다. 따라서, 독자성 메카니즘을 주장하는 연구자

들은 외동이 발달에 있어 자기 중심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과 함께, 리더쉽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설명하고 있다.

### 3) 부모-자녀 관계 메카니즘

위에 제시되었던 두 가지의 메카니즘은, 외동이의 위치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에, 부모자녀 관계의 메카니즘은 특별히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적'인 측면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동이와 만이는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은 부모에게 외동이로서, 혹은 만이로서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원리는 비슷하게 적용된다. 즉, 외동이와 만이의 경우, 부모들은 아동양육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게 되고, 따라서 아동의 행동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비현실적일도록 한다. 이러한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의 충분한 관심과 배려로 아동이 자신감을 얻도록 하며, 첫 아이에 대한 부모의 높은 기대수준은 아동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것이 아동이나 만이로 하여금 더 우호적이게 하고, 성취동기나 내적 통제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지나친 애정이나 관심은 아동 스스로 능동적인 역할을 학습할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의존성이나 이기심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 시킨다고 알려져 왔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부모의 관심이 아동의 지적 발달이나 성취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하고 있다 (Blake, 1981; Falbo & Cooper, 1980).

이상과 같이 외동이의 발달에 관한 이론적 관점은 형제아와 다른 발달상의 특성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외동이 여부 그 자체보다 유아에 대한 부모의 관심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외동이 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천편 일률적으로 부적응적 존재로서의 '소황제'인 외동이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부모의 긍정적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2. 외동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외동이의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서 제시되었던 심리적인 메카니즘 이외에,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외동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다른 요인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즉, 과거 심리학자들이나 정신병리학자들에 의해 과학적인 증거 없이 주장되어왔던 외동이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은, 이론에 기초한 보다 과학적인 연구들이 축적되어짐에 따라 다시금 재검토

되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외동이의 발달결과에 부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차례로 밝혀지면서, '진정한 형제유무에 따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1) 부모의 특성

부모의 특성에 따라 외동이의 발달상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써 예를 들면, '아버지의 부재' 혹은 '부모의 높은 관심' 등이 외동이와 형제아간의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첫째, 우선은 형제아에 비하여 외동이는 편부모일 가능성이 더 높는데, 따라서, 이것이 외동이의 발달적인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별히, Falbo(1978)는 외동이 지능의 비연속성을 설명할 때, 이것은 결핍 메카니즘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영향력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외동이의 경우, 사별이나 이혼 등에 의한 결손가정(broken home)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Blake, 1981). 따라서, 최근의 연구들은 외동이와 형제아 간의 행동발달을 비교할 때, 외동이의 수행능력이 부정적인 것은 이것이 단순히 외동이기 때문이 아니라, 외동이가 발생하게 되는 배경변인에 의한 영향임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Blake, 1981).

둘째로는, '부모-자녀관계의 성질'이, 또한 외동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외동이의 경우에는 '높은 부모의 관심'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특히, Falbo와 Polit(1986)의 보고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데, 이들은 외동이와 형제아 간의 발달결과를 다섯 영역으로 구분하여(성취, 적응, 성격, 지능, 사회성) 고찰한 결과, 외동이가 두 자녀 혹은 만이와는 유의하게 다르지는 않았으나, 대가족 자녀와 비교되었을 때는 더 우수함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소가족인 경우의 부모자녀 관계의 성질, 특별히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메카니즘으로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 2) 외동이 아동 특성

### (1) 성취수준 및 지적발달

'성취수준'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외동이와 소가족 아동, 특히 만이인 경우에, 보다 긍정적인 발달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부모의 높은 기대수준은 아동의 성취동기의 발달을 촉진시키는데, 따라서 성취동기란, 부모들이 비교적 초기에, 그들 아동에게 높은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는 만이와 외동이의 부모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동양육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훨씬 더 많은 기대를 할 것

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Blake, 1981; Ching, 1982; Falbo, 1981, 재인용).

다음으로 '지적발달'에 있어서는, 외동이에 관한 연구들은 일관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 후, Falbo와 Polit(1986)은 광범위한 외동이 연구들을 종합하여 정교한 양적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지능에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외동이가 비외동이보다 지능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즉, 외동이는 모든 다른 비교집단에 비해 IQ에서 보다 긍정적인 발달을 보였으며, 특히 두 자녀 가족(소가족)보다는 대가족이나 중간크기의 가족에 대해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하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성취수준'과 달리, '지능'의 경우에는 외동이의 우수성이 어렸을 때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같이 외동이의 이점이 연령과 더불어 점점 감소한다는 점에서 볼 때에는, confluence model이 어느 정도 지지된다고도 볼 수 있으나, 위의 결과는 Falbo와 Polit(1986)이 지적하였듯이, 형제의 가르침의 효과가 극대화되어 표현된다는 성인초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피험자가 적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 외동이가 소가족 자녀의 아동과 비교되었을 때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대가족 자녀와 비교되었을 때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취'나 '지적발달'의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형제가 없다는 것이 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가족 부모들은 아동에게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것이 아동의 지적발달이나 성취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가지 주목하여야 할 문제는, 가족크기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이다 (김제한, 1984, 재인용). 즉, 부모의 지위가 높은 경우에는 자녀수가 적고, 낮은 지위의 부모들은 자녀수가 많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부모의 배경을 통제하지 않고 아동의 지적능력을 연구한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가 형제 수에 따른 영향이고 어느 정도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에 따른 것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된다.

## (2) 사회성 발달

외동이의 사회성에 관하여 이제까지 이루어진 연구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문화권에 따른 상반된 결과와 사회성 측정방법상의 문제와 같은 두 가지의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

즉, 첫째는 외동이의 사회성에 대한 연구들은 문화권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는 외동이의 경우가 사회성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보고한 반면 (Ching, 1982), 미국의 연구결과들은 외동이와 형제아간의 사회성 발달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Blake, 1981; Blake, Ricardson, & Bhattacharya, 1991; Falbo & Polit, 1986), 이러한 결과는 중국과 미국의 연구대상자들이 각기 다른 연령의 피험자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사회성 측정방법의 문제가 있다. Falbo와 Polit(1986)은 외동이 연구를 광범위하게 고찰한 결과, 사회성의 영역에서는 연구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자기보고식의 사회성 자료인 경우에는 외동이의 점수가 비외동이보다 낮았으나, 반대로 다른 사람에 의한 평가에서는 (ex.또래평정) 비외동이와 마찬가지로 외동이의 사회성 점수가 높았다. 결과적으로, 외동이의 사회성이 자기보고식의 측정방법이었을 때 더 낮았다는 것은, 부모와의 친밀한 유대관계 및 선호하는 활동 유형에서의 차이 때문이다.

이유를 막론하고, 분명한 것은 외동이들은 자기들이 보고한 낮은 사회성에 의해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Blake(1981) 역시, 외동이는 단체나 조직에 속하는 경우가 적었으며, 친구나 친척을 덜 방문하였으나 건강이나 일에 대해 행복해하고 만족스러워 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외동이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이 성격이나 사회성 발달에 관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대체로 외동이와 형제아 간에 큰 차이가 없거나(김정아, 1990), 부분 영역에서 차이가 있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김제한, 1986; 서동주, 198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이 외동이와 형제아간의 차이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외동이에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외동이의 발달특성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외동이의 부모 특성, 외동이 자녀특성, 외동이의 부모자녀특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형제자매가 전혀 없는 외동이와 형제아를 대상으로 유아기에 속하는 만 3,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목적이 유아기 외동이에 대한 특성을 밝혀내는데 있기 때문에, 표집 과정에 있어서 유아의 외동이 유무를 의도적으로 표집 하지 않고 연령상 유아기에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대구, 상주, 구미 등 경북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3, 4, 5세 유아 500명으로 유아의 어머니와 유아의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연구대상인 유아기는 연령적 특성상 자기보고식 질문지 사용이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유아기의 특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모와 교사의 평가를 통해 유아의 특성을 밝혀내고 있기 때문에(송나리, 1993) 본 연구에서도 부모와 교사의 평가를 통해 아동의 특성을 밝혀내고자 하

었다.

조사기간은 2003년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예비조사를 하였고,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어머니용 500부, 교사용 500부 등 총 1,00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기재된 내용이 부실하거나 회수되지 않은 질문지를 제외하고 어머니용은 387부, 교사용 387부 등 총 774부를 하였으며, 이중 외동이는 63부, 형제유아는 324부로 총 387부가 통계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 2. 변인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인 질문지는 전공교수와 관련전공자들에 의해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으며, 요인분석(factor analysis)에 의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문항간의 내적일치도에 의한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각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변인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부모특성

#### (1) 사회경제인구학적 특성

##### ① 부모연령

유아의 부와 모의 조사당시 연령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 ② 부모교육수준

유아의 부모의 교육수준을 초등학교 졸업이하, 중졸이상-고졸이하, 전문대졸 및 대학중퇴, 대졸, 대학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해당부분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 ③ 결혼형태

유아의 부모의 결혼형태와 관련하여 배우자와 동거, 이혼, 사별, 별거로 구분하여 해당부분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 ④ 부모직업

유아부모의 직업과 관련하여 무직/전업주부/학생, 생산직/기술직/서비스직/판매직, 사무직, 전문/행정직으로 구분하여 해당부분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⑤ 월평균가계소득

월평균가계소득은 급여, 이자, 임대수입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한 소득으로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해당부분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⑥ 자녀출산계획여부

자녀출산계획여부는 질문지를 가져간 유아의 출산과 관련하여 계획된 출산이었는지 묻는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⑦ 자녀출산결정자

질문지를 가져간 유아의 출산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문항으로 남편, 부인, 부부간 합의, 다른 사람의 권유로 구분하여 해당부분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2) 정서적 특성

① 대상자녀에 대한 인지적·사회적 기대

부모가 자녀에 대해 어떠한 분야의 역량을 더 원하는가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희망수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사회적 역량에 대한 기대로만 한정하는데 인지적 역량이란 지적인 측면에서의 능력수준을 의미하며 사회적 역량이란 인간관계 측면에서의 능력수준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에게만 해당되는 정서적 특성으로 자녀의 역량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의 역량에 관한 공인숙(1989), 이주리(1991)의 연구를 참조로 하여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방법은 어머니가 유아자녀에 대해 기대하는 역량을 1순위에서부터 6순위까지 기입하도록 하며, 어머니가 인지적역량과 사회적 역량에 대해 어떠한 분야의 역량을 더 원하는지로 해석한다.

② 성장기 행복도

아동기동안 부모로부터 양육 손길이 얼마나 행복했던가에 대한 현재의 평가로서, 자신의 회상에 근거하는 주관적인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성장기의 행복정도를 현재 회상,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성장기 행복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현은강(1993)과 심웅철(1992)의 심리적 성장환경 척도를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성장기에 대한 회상에서 행복한 것을 의미한다.

(3) 가치관 특성

① 자녀양육관

본 연구에서는 김지신(1996)의 자녀양육에 관하여 전통-근대 가치관척도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가치관과 근대적인 가치관을 양측으로 하여 어머니들의 전통적인 가치성향을 측정하며 가족중심적 집합주의와 인본주의 및 예의범절 교육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자녀성역할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성역할이 남성과 여성에 따라 성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황현정(1997)의 연구에서 사용된 성역할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성역할관을 가지는 것으로 측정한다.

## 2) 자녀발달특성

### (1) 사회인구학적 특성

#### ① 연령

질문지를 가져간 유아의 만 연령을 의미한다.

#### ② 성별

질문지를 가져간 유아의 성별을 의미한다.

#### ③ 형제자매관계

질문지를 가져간 유아의 형제자매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딸외동이, 아들외동이, 아들, 딸 다 있음, 아들 형제만 있음, 딸 자매만 있음으로 구분하여 해당부분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 (2) 사회적능력 특성

유아의 사회 척도는 외국척도를 학령전 아동에 맞게 재구성하여 타당도 검증을 거친 송나리(1993)의 척도를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사회적 능력은 지도력, 유능성, 과민성, 불안정성 등 4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동일한 문항에 대하여 질문지를 가져온 유아에 대해 어머니와 각 유아의 담임교사가 유아의 행동상황을 관찰하여 기록하며 유아의 수행정도에 따라 1점-5점으로 채점한다.

### (3) 인지특성

Clark, Crase & Pease(1983)의 Iowa Inventory for Parent Assessment of Children's Competencies 중 인지능력 요인을 번역, 수정한 송나리(1993)의 인지능력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인지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 (4) 자아존중감 특성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우리나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연구개발한 것

을 본 연구대상인 유아기의 연령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유아에 대해 어머니와 교사가 평가한 것을 통해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 어머니가 해당 유아에 대해 유아 자신이 긍정정인 자아존중감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 (5) 기질특성

자녀의 특성이 양육하는데 있어서 까다로운가에 대한 부모의 평가를 말한다.

기질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미국의 뉴욕종단적 연구에서 처음으로 개발하여 사용한 “기질차원척도(Dimension of Temperament Survey: DOTS)”를 Windle과 Lerner(1986)가 개정한 “기질차원척도개정판(Revised Dimension of Temperament Survey: 이하 DOTS-R)”을 수정한 이명숙(1994)에서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대상인 유아기의 연령특성을 고려하여 어머니가 반응하도록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형제유아가정의 경우, 여러 자녀가 있을 경우를 고려하여 질문지를 가져온 자녀를 지정하여 응답하도록 한다. 점수가 높으면 그만큼 기질특성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영역은 일반적 활동 수준차원, 접근-회피성차원, 융통-경직성차원, 기분차원, 주위집중성차원, 지속성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활동 수준차원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표적행동의 수준을 측정하며, 접근-회피성차원은 자극을 향해 움직이거나 자극으로부터 멀리 피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융통-경직성차원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용이성을 측정하고, 기분차원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정서적 균형의 정도를 측정하며, 주의집중성차원은 외적 자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집중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지속성차원은 한 가지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만큼 기질특성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부모-자녀관계 특성

현은강과 조복희(1994)가 개발한 “부모역할만족도”척도 중에서 부모-자녀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나 관계를 나타내는 부모-자녀관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연구대상 유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만족함을 의미한다.

<표 1> 신뢰도(Cronbach's  $\alpha$ )

| 변수명          |           |           | 문항수 | 신뢰도  |     |
|--------------|-----------|-----------|-----|------|-----|
|              |           |           |     | 어머니용 | 교사용 |
| 부모특성         | 정서적특성     | 성장기 행복도   | 4   | .72  | -   |
|              | 가치관특성     | 자녀양육관     | 8   | .42  | -   |
|              |           | 자녀성역할관    | 10  | .72  | -   |
|              |           | 부모교육정도    | 12  | .89  | -   |
|              |           | 부모교육요구도   | 12  | .93  | -   |
| 자녀특성         | 사회적능력     | 지도력       | 4   | .68  | .76 |
|              |           | 유능성       | 4   | .54  | .76 |
|              |           | 과민성       | 4   | .55  | .62 |
|              |           | 불안정성      | 3   | .56  | .66 |
|              | 인지능력      |           | 9   | .84  | .89 |
|              | 기질특성      | 일반적활동수준기질 | 2   | .77  | .89 |
|              |           | 접근-철회성기질  | 2   | .70  | .70 |
|              |           | 융통-경직성기질  | 2   | .41  | .46 |
|              |           | 기분기질      | 2   | .74  | .67 |
|              |           | 주위집중성기질   | 2   | .61  | .75 |
|              |           | 지속성기질     | 2   | .77  | .79 |
|              | 자아존중감     |           | 7   | .81  | .84 |
| 부모자녀<br>관계특성 | 부모자녀관계만족도 |           | 7   | .57  | -   |

### 3. 자료의 분석방법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유아의 부모특성, 유아자녀특성, 부모자녀특성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SPSS WIN 10.0 Version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 유아의 부모특성, 유아자녀특성, 부모자녀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X<sup>2</sup> 검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유아기 외동이 가정과 형제가정의 부모 특성

#### 1) 외동이유아부모와 형제유아부모의 사회경제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인 외동이유아부모와 형제유아부모의 사회경제인구학적 특성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대상자인 유아의 어머니의 연령별분포를 살펴보면 외동이유아와 형제유아 모두 30세-34세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형제유아의 어머니의 연령은 35세 이상인 경우가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은 35세-39세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결혼 시 자신보다 2-3세 연상인 남성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우리나라 결혼경향을 보이는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결혼형태 면에서는 외동이나 형제유아 모두 대부분 부모가 동거하는 유형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알아보하고자 하는 유아특성에 있어서 부모의 부재로 인한 영향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머니의 학력에 있어서는 외동이나 형제유아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하, 대학교 졸업 이상, 전문대졸업 및 대학교 중퇴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교졸업이상, 고등학교 졸업이하, 전문대 졸업 및 대학교 중퇴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직업은 외동이의 경우, 생산직/기술직/서비스직, 전업주부, 전문·행정직, 사무직 순으로 나타났으며 형제유아의 어머니는 전업주부, 전문·행정직, 생산직/기술직/서비스직, 사무직 순이었으며 형제유아가정의 어머니의 51.4%가 전업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외동이의 경우, 생산직/기술직/서비스직이 59.0%, 전문·행정직, 사무직 순으로 나타났다. 형제유아의 경우, 생산직/기술직/서비스직이 52.4%, 사무직, 전문·행정직의 순으로 나타나 외동이와 형제유아 아버지의 50% 이상이 생산직/기술직/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지역이 구미, 상주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은 외동이의 경우, 200만원~300만원, 3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형제유아의 경우, 300만원 이상, 200만원~300만원, 200만원 미만의 순으로 외동이와 형제유아 가정 모두 200만원 이상인 가정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출산계획여부는 외동이와 형제유아 모두, 대부분 출산 계획에 따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출산결정자는 외동이와 형제유아 모두 대부분 부부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으로 부인의 결정, 남편의 결정, 친구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외동이유아부모와 형제유아부모의 사회경제인구학적 특성

| 특 성          |              | 구 분 | 외동이유아(N=63) | 형제유아(N=324) | 전체 (N=387) |
|--------------|--------------|-----|-------------|-------------|------------|
|              |              |     | 빈도(백분율)     | 빈도(백분율)     | 빈도(백분율)    |
| 어머니 연령       | 29세 이하       |     | 6(9.8)      | 24(7.4)     | 30(7.8)    |
|              | 30세 - 34세    |     | 40(64.5)    | 153(47.2)   | 193(50.0)  |
|              | 35이상         |     | 16(25.8)    | 147(45.4)   | 163(42.2)  |
|              | 총계           |     | 62(100)     | 324(100)    | 386(100)   |
| 아버지 연령       | 34세 이하       |     | 24(38.7)    | 88(27.2)    | 112(29.1)  |
|              | 35세-39세      |     | 30(48.4)    | 147(45.5)   | 177(46.0)  |
|              | 40세 이상       |     | 8(12.9)     | 88(27.2)    | 96(24.9)   |
|              | 총계           |     | 62(100)     | 323(100)    | 385(100)   |
| 결혼 형태        | 배우자동거        |     | 58(92.0)    | 319(98.5)   | 377(97.4)  |
|              | 별거 중         |     | 2(3.2)      | 3(0.9)      | 5(1.3)     |
|              | 이혼           |     | 3(4.8)      | -           | 3(0.2)     |
|              | 사별           |     | -           | 2(0.2)      | 2(0.5)     |
|              | 총계           |     | 63(100)     | 324(100)    | 387(100)   |
| 어머니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29(46.8)    | 144(44.7)   | 173(45.1)  |
|              | 전문대졸업/대학교중퇴  |     | 8(12.9)     | 66(20.5)    | 74(19.3)   |
|              | 대학교 졸업 이상    |     | 25(40.3)    | 112(34.8)   | 137(35.7)  |
|              | 총계           |     | 62(100)     | 322(100)    | 384(100)   |
| 아버지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25(40.3)    | 92(28.6)    | 117(30.5)  |
|              | 전문대졸업/대학교중퇴  |     | 9(14.5)     | 62(19.3)    | 71(18.5)   |
|              | 대학교 졸업 이상    |     | 28(45.2)    | 168(52.2)   | 196(51.0)  |
|              | 총계           |     | 62(100)     | 322(100)    | 384(100)   |
| 어머니 직업       | 무직/전업주부      |     | 20(34.5)    | 164(51.4)   | 184(48.8)  |
|              | 생산직/기술직/서비스직 |     | 22(37.9)    | 65(20.4)    | 87(23.1)   |
|              | 사무직          |     | 5(8.6)      | 23(7.2)     | 28(7.4)    |
|              | 전문·행정직       |     | 11(19.0)    | 67(21.0)    | 78(20.7)   |
|              | 총계           |     | 58(100)     | 319(100)    | 400(100)   |
| 아버지 직업       | 생산직/기술직/서비스직 |     | 36(59.0)    | 162(52.4)   | 198(53.5)  |
|              | 사무직          |     | 12(19.7)    | 77(24.9)    | 89(24.1)   |
|              | 전문·행정직       |     | 13(21.3)    | 70(22.7)    | 83(22.4)   |
|              | 총계           |     | 61(100)     | 309(100)    | 370(100)   |
| 가구 소득        | 200만원 미만     |     | 15(25.0)    | 88(27.5)    | 103(27.1)  |
|              | 200-300만원 미만 |     | 26(43.3)    | 112(35.0)   | 138(36.3)  |
|              | 300만원 이상     |     | 19(31.7)    | 120(37.5)   | 139(36.6)  |
|              | 총계           |     | 60(100)     | 320(100)    | 380(100)   |
| 자녀출산<br>계획여부 | 계획했음         |     | 43(71.7)    | 237(73.4)   | 280(73.1)  |
|              | 계획           |     | 17(28.3)    | 86(26.6)    | 103(26.9)  |
|              | 총계           |     | 60(100)     | 323(100)    | 383(100)   |
| 자녀출산<br>결정자  | 남편           |     | 5(8.2)      | 17(5.3)     | 22(5.7)    |
|              | 부인           |     | 9(14.8)     | 22(6.8)     | 31(8.1)    |
|              | 부부합의         |     | 46(75.4)    | 279(86.4)   | 325(84.6)  |
|              | 친구           |     | 1(1.6)      | 5(1.5)      | 6(1.6)     |
|              | 총계           |     | 61(100)     | 323(100)    | 384(100)   |

## 2) 외동이유아 어머니와 형제유아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

### (1) 자녀에 대한 기대

자녀에 대한 기대는 어머니가 기대하는 자녀의 역량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측정한 것으로 분석결과, 외동이와 형제유아 어머니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조사대상 외동이유아 어머니나 형제유아 어머니 모두 인지적 역량보다는 유아가 사회적 역량이 더 높기를 선호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 자녀에 대한 기대

| 변수명       |          | 외동이유아 어머니 | 형제유아 어머니  | $\chi^2$ 값 |
|-----------|----------|-----------|-----------|------------|
| 자녀에 대한 기대 | 인지적역량 기대 | 14(23.0)  | 57(18.3)  | 0.71       |
|           | 사회적역량 기대 | 47(77.0)  | 254(81.7) |            |
| 총계        |          | 61(100)   | 311(100)  | 372(100)   |

### (2) 성장기 행복도

성장기 행복도는 조사대상 유아의 어머니의 성장기에 대한 회상에 있어서 성장기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측정한 것으로 분석한 결과, 외동이와 형제유아 어머니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외동이유아 어머니와 형제유아 어머니의 성장기 행복도를 평균점수를 보면 모두 5점 만점에 각각 3.44점, 3.46점으로 중수준 이상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표 4> 어머니의 성장기 행복도

| 변수명     |           | 표준편차 | 평균   | N   | t 값   |
|---------|-----------|------|------|-----|-------|
| 성장기 행복도 | 외동이유아 어머니 | .63  | 3.44 | 62  | -.152 |
|         | 형제유아 어머니  | .66  | 3.46 | 323 |       |

## 3) 외동이유아 어머니와 형제유아 어머니의 가치관 특성

자녀성역할관에 있어서는 외동이유아 어머니의 경우, 5점 만점에 3.7점, 형제유아 어머니의 경우, 3.7점으로 자녀의 성역할관은 중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유아 어머니의 가치관 특성을 알아보려고 자녀양육관, 자녀성역할관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자녀양육관의 경우, 5점 만점에 외동이유아 어머니는 평균 3.6점, 형제유아어머니는 평균 3.7점으로 외동이유아 어머니와 형제유아 어머니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외동이유아 어머니와 형제유아 어머니의 가치관 특성

| 변수명    |           | 표준편차 | 평균   | N   | t 값    |
|--------|-----------|------|------|-----|--------|
| 자녀양육관  | 외동이유아 어머니 | .41  | 3.60 | 62  | -.1788 |
|        | 형제유아 어머니  | .44  | 3.71 | 313 |        |
| 자녀성역할관 | 외동이유아 어머니 | .57  | 3.73 | 58  | - .056 |
|        | 형제유아 어머니  | .50  | 3.74 | 312 |        |

## 2. 외동이유아가정과 형제유아가정의 자녀발달 특성

외동이유아와 형제유아의 유아발달 특성을 알아보고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적능력 특성, 인지능력특성, 자존감특성, 기질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1) 외동이유아와 형제유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외동이유아와 형제유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외동이유아와 형제유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특성구분       |      | 외동이유아<br>(N=63) | 형제유아<br>(N=324) | 전체<br>(N=387) |
|------------|------|-----------------|-----------------|---------------|
|            |      | 빈도(백분율)         | 빈도(백분율)         | 빈도(백분율)       |
| 연령         | 3세   | 12(19.0)        | 38(11.8)        | 50(13.0)      |
|            | 4세   | 21(33.3)        | 102(31.6)       | 123(31.9)     |
|            | 5세   | 19(30.2)        | 111(34.4)       | 130(33.7)     |
|            | 6세   | 11(17.5)        | 72(22.3)        | 83(21.5)      |
|            | 총계   | 63(100)         | 323(100)        | 386(100)      |
| 형제<br>자매관계 | 외동이  | 63(100)         | -               | 63(16.3)      |
|            | 남매   | -               | 188(58.2)       | 188(48.7)     |
|            | 아들형제 | -               | 75(23.2)        | 75(19.4)      |
|            | 딸자매  | -               | 60(18.6)        | 60(15.6)      |
|            | 총계   | 63(100)         | 323(100)        | 386(100)      |
| 성별         | 남아   | 36(57.1)        | 170(52.5)       | 206(53.2)     |
|            | 여아   | 27(42.9)        | 154(47.5)       | 181(46.8)     |
|            | 총계   | 63(100)         | 324(100)        | 387(100)      |

먼저 연령의 분포에 있어서, 조사대상을 표집할 때 경북 소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아기에 속하는 만 3, 4, 5세 외에 학령 전인 6세 유아도 표집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외동이유아와 형제유아의 연령분포는 만 4세, 만 5세가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만 3세와 만 6세가 분포되어 있다. 이는 주로 3살까지는 어머니가 집에서 양육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만 3세를 넘긴 후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조사대상 유아의 형제자매관계는 형제유아의 경우, 아들하나, 딸 하나로 구성된 남매의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아들 형제, 딸 자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자녀출산과 관련하여 남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조사대상 유아의 성별구성을 살펴볼 때, 외동이와 형제유아 모두 남아가 여아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 성별구조면에서 현재 출생하는 아동 성비에 있어서 남아가 여아를 웃도는 현상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외동이유아와 형제유아의 사회적능력발달 특성

외동이유아와 형제유아의 사회적능력발달 특성에 관한 분석은 다음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외동이유아와 형제유아의 사회적능력 발달 특성

| 변수명                   |      |       | 어머니 |      |      |       | 교사  |      |      |        |
|-----------------------|------|-------|-----|------|------|-------|-----|------|------|--------|
|                       |      |       | N   | 평균   | 표준편차 | t값    | N   | 평균   | 표준편차 | t값     |
| 사<br>회<br>적<br>능<br>력 | 지도력  | 외동이유아 | 62  | 3.38 | .65  | -.687 | 63  | 3.38 | .67  | -1.512 |
|                       |      | 형제유아  | 320 | 3.44 | .55  |       | 323 | 3.52 | .68  |        |
|                       | 유능성  | 외동이유아 | 62  | 2.97 | .76  | -.357 | 63  | 3.04 | .91  | -.055  |
|                       |      | 형제유아  | 324 | 3.00 | .73  |       | 323 | 3.05 | .77  |        |
|                       | 과민성  | 외동이유아 | 61  | 3.37 | .65  | .883  | 63  | 3.04 | .76  | -1.446 |
|                       |      | 형제유아  | 320 | 3.29 | .64  |       | 324 | 3.18 | .72  |        |
|                       | 불안정성 | 외동이유아 | 62  | 3.52 | .56  | .020  | 63  | 3.53 | .61  | -.319  |
|                       |      | 형제유아  | 322 | 3.52 | .55  |       | 324 | 3.55 | .57  |        |

유아의 사회적능력발달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도력, 유능성, 과민성, 불안정성 등 4개의 하위영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각 영역별로 외동이유아와 형제유아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5, 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송나리(1993)의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연구결과이

다. 또한 유치원의 자유놀이 상황을 관찰한 결과, 외동아와 형제아간의 사회적 행동 및 놀이활동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Zheng & Colombo(198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각 영역별로 살펴볼 때, 외동아와 형제아 모두 불안정성 영역에서 가장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3.52점), 지도력, 과민성, 유능성 순으로 나타났다.

### 3) 외동아와 형제아의 인지능력 발달 특성

외동아와 형제아간의 인지능력 발달 특성에 관한 분석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외동아와 형제아의 인지능력 발달 특성

| 변수명  |     | 어머니 |      |      |      | 교사  |      |      |        |
|------|-----|-----|------|------|------|-----|------|------|--------|
|      |     | N   | 평균   | 표준편차 | t값   | N   | 평균   | 표준편차 | t값     |
| 인지능력 | 외동아 | 62  | 3.75 | .51  | .868 | 63  | 3.51 | .67  | - .441 |
|      | 형제아 | 320 | 3.69 | .52  |      | 324 | 3.55 | .62  |        |

<표 8>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인지능력 역시 외동아와 형제아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외동아와 형제아간의 인지능력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박범실(1986), 김정아(1990), 송나리(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4-7세 유아의 지능검사 점수를 형제유무에 따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Brackbill 과 Nichol(198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 4) 외동아와 형제아의 자존감 특성

외동아와 형제아의 자존감 특성은 어머니와 교사가 조사대상 유아를 평소 관찰할시 유아 스스로를 어떻게 인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지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표 9>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외동아와 형제아간의 자존감 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9> 외동아와 형제아의 자존감 특성

| 변수명 |     | 어머니 |      |      |      | 교사  |      |      |     |
|-----|-----|-----|------|------|------|-----|------|------|-----|
|     |     | N   | 평균   | 표준편차 | t값   | N   | 평균   | 표준편차 | t값  |
| 자존감 | 외동아 | 59  | 3.85 | .58  | .959 | 63  | 3.82 | .53  | .95 |
|     | 형제아 | 323 | 3.77 | .49  |      | 323 | 3.75 | .52  |     |

## 5) 외동이유아와 형제유아의 기질 특성

외동이유아와 형제유아의 기질특성을 분석한 결과 <표 10>과 같다. 외동이유아와 형제유아의 특성에 관한 분석에 있어서 <표 10>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다른 특성과는 달리 기질 특성에 있어서는 외동이유아와 형제유아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외동이유아와 형제유아의 기질 특성

| 변수명              |                |       | 어머니 |      |      |         | 교사  |      |      |          |
|------------------|----------------|-------|-----|------|------|---------|-----|------|------|----------|
|                  |                |       | N   | 평균   | 표준편차 | t값      | N   | 평균   | 표준편차 | t값       |
| 기<br>질<br>특<br>성 | 일반적 활동<br>수준차원 | 외동이유아 | 62  | 3.48 | .91  | 2.389*  | 63  | 3.25 | 1.07 | 2.592*   |
|                  |                | 형제유아  | 323 | 3.17 | .93  |         | 324 | 2.90 | .94  |          |
|                  | 접근-회피성<br>차원   | 외동이유아 | 62  | 3.64 | .78  | 1.614   | 63  | 3.44 | .77  | .710     |
|                  |                | 형제유아  | 324 | 3.48 | .66  |         | 323 | 3.78 | .66  |          |
|                  | 융통-경직성<br>차원   | 외동이유아 | 62  | 2.32 | .62  | -.160   | 63  | 2.60 | .72  | -1.006   |
|                  |                | 형제유아  | 324 | 2.34 | .62  |         | 322 | 2.69 | .71  |          |
|                  | 기분 차원          | 외동이유아 | 62  | 4.18 | .57  | 1.822   | 63  | 3.87 | .68  | 1.064    |
|                  |                | 형제유아  | 324 | 4.02 | .61  |         | 323 | 3.77 | .66  |          |
|                  | 주의집중성<br>차원    | 외동이유아 | 62  | 3.01 | .78  | -.730   | 62  | 2.71 | .91  | -3.185** |
|                  |                | 형제유아  | 323 | 3.09 | .78  |         | 324 | 3.07 | .80  |          |
|                  | 지속성 차원         | 외동이유아 | 62  | 3.0  | .92  | -1.987* | 63  | 2.99 | .90  | -2.475*  |
|                  |                | 형제유아  | 324 | 3.23 | .81  |         | 324 | 3.27 | .79  |          |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어머니와 교사의 평가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일반적 활동수준 차원의 경우, 외동이유아가 형제유아보다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표적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의집중성 차원은 교사의 평가에서만 외동이유아보다 형제유아가 외적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집중하고 지각하는 수준이 높으며, 지속성 차원에서는 어머니와 교사의 평가 모두 외동이유아보다는 형제유아가 한 가지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 교사의 유아에 대한 평가경향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유아에 대한 기질 특성에 대한 분석시 일단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특성과 달리 기질 특성 부분에 있어서 외동이유아와 형제유아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점은 매우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수준에 유아의 기질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서 입증된 선행연

구(현온강, 1993)를 통해 미루어 볼 때, 유아의 기질은 부모역할에 있어서 까다로운 기질의 특성이나 양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기질특성일수록 부모역할갈등을 유발하여 다음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유아의 기질은 실질적으로 어머니의 평가에 의해 분석되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유아에 대한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외동이유아의 어머니가 형제유아의 어머니에 비해 지속성 차원이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은 외동이유아 어머니가 외동이유아의 지속성 향상과 관련한 역할수행에 대한 잠재적인 욕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3. 유아기외동이가정과 형제가정의 부모자녀관계 특성

#### 1) 외동이와 형제유아의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외동이유아와 형제유아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부모자녀관계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외동이유아와 형제유아 모두 부모-자녀관계만족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동이유아와 형제유아 어머니 모두 각기 5점 만점에 3.68점, 3.73점으로 중수준 이상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만족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부모역할만족도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결과에서 대체적으로 부모-자녀관계의 만족수준이 중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외동이나 형제유무보다는 자녀의 건강이나 기질 등 개별적 특성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현온강, 1993)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외동이나 형제아 가정 모두 자녀양육에 있어서 자녀의 건강과 기질 등이 부모역할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유아기가정의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교육에 대한 욕구임을 시사한다.

<표 11> 외동이유아부모-자녀관계와 형제유아부모-자녀관계만족도

| 변수명             |       | N   | 평균   | 표준편차 | t값     |
|-----------------|-------|-----|------|------|--------|
| 부모-자녀<br>관계 만족도 | 외동이유아 | 60  | 3.68 | .49  | - .646 |
|                 | 형제유아  | 317 | 3.73 | .54  |        |

## V. 결론 및 제언

현재의 저출산을 추세로 인해 외동이가족은 향후 점점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외동이가족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외동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외동이의 특성을 잘 알고 그에 맞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과 아동양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및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발달단계 중 주위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로 유아기의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증가하는 외동이 유아를 둔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외동이유아 가족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동이와 형제유아의 부모특성은 형제유아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경제인구학적 특성에 있어서 외동이와 형제유아 모두 부부합의 하에 출산계획을 통해 출산하였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의 경우, 대부분 고졸 이상, 가구소득 200만원 이상 등 비교적 중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서적 특성은 외동이와 형제유아 어머니 모두 자녀에 대해 인지적 역량보다는 사회적 역량을 더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성장기 행복도는 외동이와 형제유아 어머니 모두 중수준 이상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치관 특성은 자녀양육관과 자녀성역할관 모두 중간수준으로 나타나 근대적 성향과 전통적 성향의 중간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동이와 형제유아의 자녀특성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볼 때, 외동이의 경우, 다만, 여아보다는 남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전체 출산성비의 불균형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첫아이가 여아일 경우 대부분 다음 출산을 계획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능력발달 특성에 있어서는 각 하위영역별로 외동이와 형제유아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외동이와 형제유아 모두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능력, 자존감에 있어서는 외동이와 형제유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질 특성에 있어서 외동이와 형제유아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외동이유아가 형제유아보다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표적행동수준이 더 높으며, 형제유아가 외동이유아보다 주의집중이 높고, 지속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동이와 형제유아의 부모자녀관계 특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동이와 형제유아 어머니 모두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중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외동이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외동이와 형제유아에 대한 차이에 있어서 부분적인 차이는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발달특성을 측정하고자 교사평정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연구들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교사는 부모보다 신뢰로운 평가자로 인정되고 있다(송나리, 1993; Connolly & Doyle, 1981; Harter, 1982). 이는 최근 대중매체를 통해 외동이의 사회적 고립 등 사회성 등에 대한 부정적 관심을 보여주는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외동이가족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즉, 외동이라면 외레이 사회성이 떨어지고, 협동하지 못하며, 외동이 부모는 이기적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기 쉽기 때문에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사회성 증진이나 협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는 획일적인 접근을 하기 쉽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부모특성이나 유아 특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형제유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는 유아기라는 전반적인 발달특성을 고려한 가운데 이들 외동이 가족이 사회에서 외동이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결함을 지닌 가족이라는 부정적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유아기외동이의 실태에 보다 접근하고자 표집 시에 외동이유무를 통제하지 않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표집 하였는데, 표집결과, 외동이는 형제유아에 비해 적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표집 대상이 대구, 구미, 상주 등 전통적인 자녀관이 잔재한 지역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동이 성별구성에 있어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출산성비의 불균형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교육기관에서 남아에 비해 여아의 부족으로 짝을 형성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남아의 심리적 불편감, 이들이 성장한 후 결혼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예견해 볼 때,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교육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외동이와 형제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외동이와 형제유아간의 차이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가 있음을 바탕으로 외동이유아 가족에 대한 특성을 밝혀보고자 외동이 유무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외동이유아 가족의 특성이 형제유아 가족의 특성과 비교시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다만, 부분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음을 밝혀냈다. 이는 현재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외동이유아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외동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자칫 외동이 유아가정의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사회성 증진이나 부적응 개선 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증가추세를 보이는 외동이가정이 또 하나의 다양한 가정유형으로서 부모들의 인식의 변화를 꾀하고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 관점에서의 상호작용을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동이 유아가정의 부모교육프로그램의 방향과 관련하여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대구, 상주, 구미 등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으며, 형제유아의 경우, 질문지를 가지고 간 유아를 대상으로 평가한 것이므로, 다른 형제유아와의 비교 시, 형제서열상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유아나 형제서열별 비교를 통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외동이유아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외동이유아 가정의 특성을 부모특성, 유아특성, 부모자녀관계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부모특성에 있어서 아버지의 특성, 그리고, 어머니와 교사의 평가를 기준으로 한 유아특성 외에 유아의 인지한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대부분의 외동이의 특성을 분석하는 척도는 외국의 척도를 국내에서 번안하고 수정한 것으로 형제아를 기준으로 하여 만들어진 척도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도 사용하였다. 따라서, 외동이의 발달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희, 허혜경(1998). 유아발달. 교육과학사.
- 김정아(1990). 형제간 및 또래간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가족인구학적 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제한(1984).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제변인에 관한 연구-어머니와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신(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소현(2000).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요인과 아동의 외면적·내면적 적응행동.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정자(1986). 유아의 사회·발달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범실(1986).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그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일현(1995).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유아기질 및 적응간의 상관.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희(1996). 영아와 교사간 애착 안정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동주(1988). 형제수와 아동의 성격특성간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영혜, 김광웅, 이재연, 서영숙, 이소희(2001). 아동심리학.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송나리(1993). 외동이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 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웅철(1992).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개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우영, 이숙(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양육스트레스원, 사회적 지지,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65-66.
- 이기숙(1982). 유아교육과정. 교문사.
- 이명숙(1994). 기질 및 또래 지지가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단기종단적 패널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소희, 정민자, 김경희, 박인전, 손지미, 김영관, 홍계옥, 도미향, 김민정(1998). 현대가족복지론. 양서원.
- 이주리(1994). 유아 및 아동의 가정환경 및 또래환경과 역량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문자(1992). 유치원 교사와 어머니의 부모교육내용 요구조사. 유아교육연구, 12, 163-183.

- 정옥분(2002). 아동발달의 이해. 학지사.
- 매일신문(2003). 8.4. 생활면 기사.
- 조선일보(2003). 8.15. 사회면 기사.
- 최보가, 전귀연(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대한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제31권 2호, 41-54.
- 통계청(2002). 한국사회지표.
- 한겨레신문(2003). 4.4. 사회면 기사.
- 헤럴드경제신문(2003). 6.5. 기사.
- 홍정희(1993). 유아기 자녀 행동에 대한 맞벌이 부모의 기대와 역할수행정도.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은강(1993).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변인.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현은강·조복희(1994).-부모의 역할만족도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2(1), 103-117.
- 황현정(1997). 3세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자녀양육관 및 성역할에 따른 어머니의 격리불안.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rkowits, D., Scharff, J., & Others.(1989). *Foundations of Object Relations Family Therapy*. London: Jason Aronson Inc.
- Blake,J.(1981). The Only Child in America : Prejudice versus Performanc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1, 43-54.
- Blake, Richardson, & Bhattacharya(1991). Number of Sibling and Soci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53, 271-283.
- Brackbill & Nichol(1982). A Test of the Confluence Model of Intellectu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vol.18(2), pp 192-198.
- Bridges, L., & Gronick, W.(1995).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self-regulation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N. Eisenberg(Ed.), *Social development: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Thousand Lakes, CA: Sage. 185-211.
- Ching, C.C.(1982). The One Child Family in China : The Need for Psychosocial Research, *Studies in Family Planning*, vol.13, 208-212.
- Clark, Crase & Pease(1983). Iowa Inventory for Parent Assessment of children's Competencies. *Unpublished Manual for IIPACC*.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Icn.
- Cole, P. M. (1986). Children's spontaneous control of facial ex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309-1321.
- Eisenberg, N., Fabes, R. A., Nyman, M., Bernzweig, J., & Pinuelas, A. (1994). The relations of emotionally and regulation to children's anger-related reactions. *Child Development*, 65, 109-128.
- Falbo(1978). Sibling tutoring and other explanation for intelligence discontiouites of only and last borns, *Journal of Population*, vol.1(4), 349-363.
- Falbo, T., Cooper, C. R(1980). Young Children's Time and Intellectual Ability,

-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vol.4(1), 121-131.
- Falbo, T., Polit, D.F.(1986), "Quantitative Review of the Only Child Literature: Research Evidence and Theory Development", *Psychological Bulletin*, vol.100(2), 176-189.
- Marterson, J.(1972). *Treatment of the Borderline Adolescent: A Developmental Approach*. New York: John Wiley & Sons.
- Windle & Lerner(1986). Reassessing the dimensions of temperamental individuality across the life : The Revised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DOTS-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 213-320.
- Zajonc, R.B., Markus,G.B.(1975). Birth Order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Psychological Review*, vol.82, 74-88.
- Zheng & Colombo(1988). "Sibling Configuration and Gender Differences in Preschool Social Participatio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vol.150(1), 45-50.